

전 자 보 고

문서번호	국제사업과-2307	국제사업과장	우편사업단장	본부장
보존기간				12/28
보고일자	2015. 12. 28.			
공개여부	공개	임성민	박종석	김기덕
보고자	유영철			
제 목	한 · 중국, 한 · 베트남 국제우편 신규서비스 MOU 체결 결과보고			

□ 출장 일정

(중국)

- 일시 및 장소: '15.12.23.(수) 10:30~11:30, 중국 산둥우정 본사(지난)
- 참석자: 우편사업단장, 산둥우정EMS 사장 Wu Quanbing, FTZ Solution社 사장 YIN JACK Wei Chou

(베트남)

- 일시 및 장소: '15.12.21.(월) 11:00~13:00, 베트남 EMS 본사(하노이)
- 참석자: 우편사업단장, 베트남 EMS Mr. Le Quoc Anh 사장

□ 주요 내용

(중국)

① 한 · 중 해상특송서비스 확대 MOU 체결

- 중국내 배송지역 확대: 산둥성 → 중국 전지역
 - 확대 방법: 산둥성 지역은 기존의 우편통관 적용, 기타 지역은 상업통관 처리하여 중국우정 국내택배로 중국 전 지역 배송
 - * 단, 중국 서부 Xinjiang과 Xizang은 해상특송우편물 배달지역에서 제외
 - 상업통관 절차: 산둥성내 중국우정의 상업통관업무 지원업체인 UCS(국내법인명: FTZ솔루션)와 업무제휴로 중국내에서 상업통관 지원
- 제한중량 확대: 2kg → 30kg으로 확대
- 배달국취급비 확정

(한국→중국행)

배달지역	통당	kg당			비 고
		월2만건 이하	월2만~3만건	월3만건 초과	
산동지역	1.5 SDR	0.3 SDR	0.35 SDR	0.40 SDR	우편통관
산동지역 외 기타지역	1.5 SDR	0.5 SDR			상업통관

- * 1kg기준 1통당 배달요율은 산동지역(우편통관)은 2,880원(월2만건 이하)~최대 3,040원(월3만건 초과), 기타지역(상업통관)은 3,200원으로 책정
- * FTZ는 산동우정에 1kg기준 1통당 2,880원(1.5SDR/item+0.3/kg) 지급

(중국→한국행)

배달지역	통당	kg당			비 고
		월2만건 이하	월2만~3만건	월3만건 초과	
한국 전지역	1.5 SDR	0.20 SDR	0.15 SDR	0.10 SDR	우편통관

- * 산동우정은 FTZ로 1kg 기준 2,720원(1.5SDR/item+0.2SDR/kg) 지급
- * FTZ는 월물량에 따라 1kg기준 1통당 최저 2,560원(월3만건 초과)~최대 2,720원(월2만건 이하)을 한국우정에 지급

○ 시행일 : '16. 1. 1.

(베트남)

① EMS 배달국취급비 인하 협약 체결

- 한국→베트남 85천통, 베트남→한국 6.2천통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배달국취급비 상호 인하(비서류, 6SDR → 4SDR, 2SDR↓)
- * `15년 예상물량(한→베 80천통, 베→한 5천통)에 `12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반영
- 적용기간 : '16.1.1. ~ '16.12.31.

② EMS 초특급서비스 도입 협약 체결

- 서울↔호치민, 하노이 간 서류에 대하여 접수 후 익영업일 내 배달(취급수수료 건당 1 SDR, 약 1,600원 추가 정산)
- 시행일 : '16. 1. 1.

③ 추가 협의사항

- (초특급서비스) 접수지역 및 배달지역 상호 확대
- (신규 서비스) 고중량 EMS(30~50kg), 요금수취인부담(COD), 동시 묶음배송(Multi-package) 도입 추가 협의
- * 동시묶음배송: 30kg 이하 2개 이상의 물품을 수취인에게 동시 배달

□ 향후 계획

- (중국) 한·중간 해상특송서비스 확대 시행: '15.12.29.(화)
- (베트남) EMS 초특급서비스 확대 시행: '15.12.29.(화)
- (베트남) 한·베트남 간 EMS 신규서비스 시행: '16.3월
- * EMS 신규서비스 도입 협약 체결은 한국에서 추진 예정('16.3)

우본 '한중 해상특송서비스' 중국 전역으로 확대

송고시간 | 2015/12/23 12:00

f t g+ BAND blog | 🖨️ + -



한-중 해상특송서비스 중국 전역 확대

(서울=연합뉴스)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편사업단장(맨 왼쪽)과 중국우정 우 원빙 산둥EMS 사장(가운데), 중국우정청 산하인 켜 웨이 추 FTZ 솔루션 사장이 23일 중국 지난에서 내년 1월부터 한-중 해상특송서비스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<<우정사업본부 제공>>

(서울=연합뉴스) 정성호 기자 =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 물품을 국제특급우편(EMS)의 절반 가격으로 배송해주는 '한중 해상특송서비스'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.

이 서비스는 그동안 중국 산둥성 지역에만 적용됐다.

우본은 또 이 서비스에 대한 제한중량을 2kg에서 30kg으로 확대하기로 했다.

끝.